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가 약 5%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 기준으로는 평범한 편이고 기적적인 성장에 익숙해진 중국인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치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모든 것을 잘못 운영했는데, 특히 경제에 관해서 잘못 이끌게 된 것은 중국 시민들이 자신감을 잃고 지출과 투자에 회의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과 민영기업들은 철수중입니다. 중국의 노동력은 줄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의 경제를 살리려는 시도는 현재의 디플레이션을 더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중국의 현재 빚더미 50조 달러에 더해 빚을 더 늘리고 대규모의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오히려 중국의 실수와 미국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 증가 사이에 눈에 띄는 유사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높은 세금과 사업의 규제, 정치적으로 선호하는 기업과 특정 유권자 집단에 수조 달러를 쏟아 붓는 것에 경종을 울려야합니다. 돈을 쏟아 부어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은 40년간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성장은 미국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높은 물가와 저성장이 합쳐진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최근의 여론 조사는 많은 사람들(58퍼센트)이 바이든의 정책이 상황을 악화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의 주택구입능력은 34년만에 최저치입니다. 치솟는 식료품 가격에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은 기록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서류상 월급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계속 가난해집니다.

미국인들이 확실하게 알아챈 것은 미국이 점점 중국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점은 중국의 계속되는 몰락이 우리 미국을 바꿀 동력을 줄 것인가 아니면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과 같은 운명을 걸을 것인가입니다.

번역: 왕호준

출처:

<https://www.heritage.org/asia/commentary/chinas-economic-collapse-carries-warning-about-our-own-future>